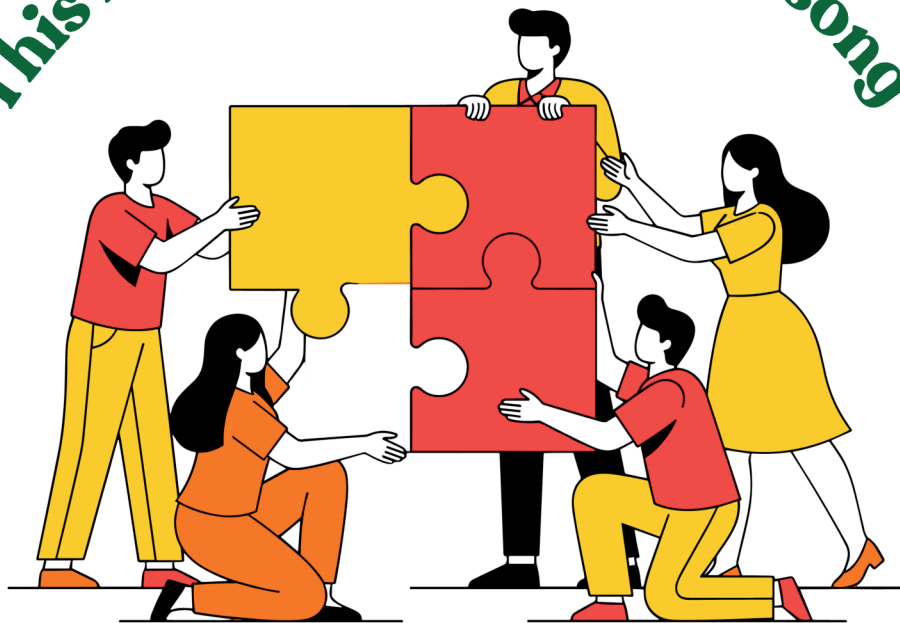


This is our story, this is our song



2025년 우리의 비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덴버드림교회 소식지
2025년도 상반기 Vol. 4



지난 사역 되돌아보기

9-12월 교회 소식

기독교 종교 개혁 현장 탐방

지난 9월 16일 - 26일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 기독교 종교 개혁의 현장을 탐방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약 보름간의 기간동안 성지 탐방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와 복음을 말씀하신 그 대로 수호하고자 했던 전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좁은 길을 걸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백과 그들의 유산이 아직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덴버드림교회 성도로서 순전한 복음을 더욱 사모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군사로써 잘 훈련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칸타타

지난 12월 21일 성탄감사예배 및 성탄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만찬 후 오후 칸타타 공연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찬양대원은 블루 나비 넥타이와 스카프로, 아기 예수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로, 별을 따라나선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두달 여를 꼬박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총 6곡의 칸타타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13명 남짓의 소수의 대원이었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교회 파노라마

지난 일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함께 걸어왔던 길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럽 종교개혁지 방문



밀알 선교단 방문



푸에블로 농장 나들이



LA SORO Cafe 오픈 감사 예배



성탄 칸타타



성탄 칸타타 기념 촬영



송구영신예배





슬기로운 신앙 생활

유결 집사님, 평소 산책과 독서를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 시간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와 다른 남들을 즐기기”

나는 걷기를 좋아한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건강을 위하여 걷는 것은 아니고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일을 할 때에는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앞에 있는 양재천변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양재천 주변의 조경은 삼성 타워 펠리스를 개발할 때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꾸민 것인데 맑은 물이 흐르는 천변에 온갖 식재와 꽃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지고 있는 산책길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생각이 막히거나 설계의 진척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양재천으로 나와 이 문제들을 생각하며 걷는다. 산책이 끝날 때쯤 해서는 대체로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곤 한다.

덴버에서 내가 걷기 위하여 가는 곳은 집에서 10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Washington Park 이다. 공원 있는 자전거 주행로를 따라 산책로를 한바퀴 걸으면 한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정도여서 나에게 알맞은 거리이다. 이 곳을 걸을 때에는 생각을 하며 걷기도 하고, 또 공원의 꽃과 나무들 그리고 공원에서 나같이 걷는 사람들, 풀밭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걷는다.

이 공원의 나무들은 전정이 잘 되어 있어서 어린 나무이거나 커다란 고목이거나 재가꿈의 모양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나무들의 생김새는 나무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 하다. 잔가지가 많아서 곱게 자란 나무, 굵은 몇개의 가지로 강한 힘이 느껴지는 고목, 곧게 자라 올라가는 나무, 온통 비틀린 가지들이 요란하게 섞여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의 모양은 자기들의 성격이나 자라온 세월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수천 그루의 나무들은 놀랍게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독특한 자기들의 모양을 갖고 있다. 걸으며 나무들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나같이 걷는 사람이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 휴식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 중에도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온갖 종류의 개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일이다.



사람들은 공원에 나와 걸으면서도 누구와 통화를 하거나 무슨 뉴스를 들으며 걷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일이나 생각에 잠겨 걷는데 개들이나 아이들은 마주하는 사람을 늘 관심을 갖고 쳐다본다. 그저 눈길을 주는 것만도 반가워서 나는 개들이나 아이들을 지나게 될 때에는 손짓으로라도 인사를 하려고 한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도 나무 만큼이나 제각각 생긴 모습이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고 옷도 걷는 모양들도 같은 모양이 드물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재가끔 다른 모양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같은 옷들을 입고 있다면 이곳이 무슨 훈련소 같이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나무들도 그 크기나 모양들이 같으면 나무를 기르는 묘목장 같고 공원 같은 곳으로는 느껴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나는 모든 건축가들이 그렇듯이 같은 모양의 건축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 늘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찾는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재미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재가끔 다른 것을 만드셨기에 보시고 좋다고 하시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만물을 제각각 다른 모양이 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건축가들은 같은 두개를 만들지 않으려고 고민에 고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만드시었다 하는 것은 나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자기 자신이기를 수줍어 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져서 그들 속에 숨어 버리려고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대중의 심리이기도 하다. 때로는 교육이나 규범이 자라는 아이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 때에는 모두가 같은 것이 편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고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기도 한다. 하지만 편한 것이 삶의 의미를 혼돈되게 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나와 다른 남들을 즐기고 남들과 다른 나를 잘 가꾸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날 공원을 걸으면서 한 생각이다.



유 걸 집사

약함은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난 달, 장애사역의 선구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Joni Eareckson Tada)를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척수를 다쳐 전신마비를 겪게 되었고, 손목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제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조니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으며, Joni & Friends 라는 장애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휠체어와 재활 용품을 나누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는 통증과 반복되는 건강과 두번의 유방암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조니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allows what he hates to accomplish what he loves.”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허락하시는 순간에도, 자신이 사랑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와 죽음을 미워하시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끄시며, 믿음을 빚으시고, 교회를 통해 이웃을 살리는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주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후 12:9),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십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조니의 삶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당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이 만연했고, 의료 기술도 부족했으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장애를 개인의 죄나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드러냈고, 고통을 통해 소외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조니의 단체가 수많은 사람을 도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무의미한 경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경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역경을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볼들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교회일 수도, 병원이나 요양원일 수도, 학교나 고아원일 수도, 혹은 곁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 역경은 고통으로만 남지만, 하나님께 드러질 때 역경은 사명이 되고, 약함은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감당해야 할 소명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약함은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J.D.Kim 목사



지난 12월 한국어 버전으로 발간된 김지훈 목사의 책을 소개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은혜>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은혜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이 책이 주님과 깊은 동행의 증거이고, 고통 중에 계신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반기 사역 일정

신년맞이 특별새벽기도회

2026년 새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일시 1/6(화) ~ 1/10(토)

신년 말씀 집회

신년 초 덴버드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기석 목사님을 초청하여 3일간 집중적인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며 비전을 품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간 1/9(금) ~ 1/11(주일)

주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자”

공동 의회 및 선교회 모임

2025년 재정 예결산안과 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2026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시 1/18(주일)

관대한 나눔 영성 수련회

세계적인 재정나눔 사역 단체인 Generosity Path가 지난 1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온 Journey of Generosity Retreat이 우리 교회를 찾아 옵니다.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 드립니다.

일시 1/24(토)

장소 덴버드림교회 도서관

남성 수련회

세계적인 남성 전문사역인 MMFC가 크리스천 남성의 치유와 회복, 영적 성숙을 위한 2박 3일의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남선교회 중심으로 참여하셔서 회복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시 2/12(목) ~ 2/14(토)

장소 LA, 세리토스선교교회

여성 수련회

교회의 형제님들이 LA에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동안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하고자 합니다.

일시 2/14(토)

리딩 정인경 사모님

장소 담임목사님 자택

덴버드림교회
담임 목사 정성욱

발행일 01.03.2026
편집부 정덕찬, 최원경
www.denverdreamchurch.org

